

# 육계출하 후 계분 소득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 취재/이유희 기자

**최** 근 육계농가에서는 육계출하 후 계분 처리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깔짚의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육계분을 치우지 않고 덧씌우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처리방법도 각양각색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농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정리하였다.

## 1. 계분의 쓰임새

육계농가에서 육계출하 후 계분 처리는 위생적인 측면 뿐 아니라 농가 부수입원으로 점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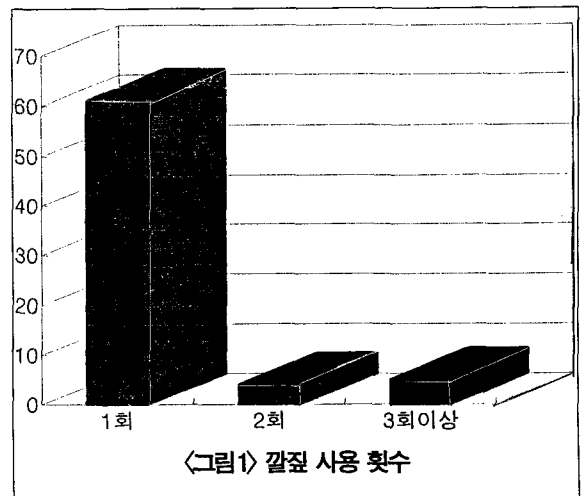
재 계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계분의 쓰임새는 대부분이 농작물 생산에 비료로 투입되고 있고, 발효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최근 본지에 소개된 사료로 활용하는 방법과 소각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 2. 깔짚의 연속 사용 실태

육계를 사육할 때 육계분은 깔짚을 이용하여 처리가 되는



데 이 깔짚을 제거하지 않고 몇 번을 사용하고, 왜 연속해서 사용하는 지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농가에서는 깔짚을 여러 번 사용하는 곳은 드문데 대부분 1회를 사용하는 그 비율이 87.1%, 2회 사용하는 곳이 5.7%이고, 3회 이상이 7.2%로 나타났다.

1회 사용하는 이유는 연속하여 사용한 결과 질병이 많았다고 대답을 하였고 현재 2회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곳에서의 이유는 계분발효를 보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40%, 깔짚가격문제가 33%, 계분처리문제가 20%, 인건비의 상승이 7%로 나타났다.

### 3. 지역별(지부·분회) 계분 처리 실태

#### ① 용인

몇 해 전만 해도 상인들에게 계분 판매 대금을 받고 계분을 처리하였는데 현재는 인건비의 상승과 인근의 양축농가의 증가와 주택단지의 조성으로 원에 농가의 감소로 인하여 육계 출하 후 계사 내부를 깨끗이 치워 주는 조건으로 계분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형편이다.

#### ② 이천

이 천 도 역시 용 인 과 비 수 한 형 편 으 로 상 인 들 이 계 분 을 대 관 령 과 같 은 고 냉 지 원 에 단 지 에 11톤

트럭 한차에 60~70만원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③ 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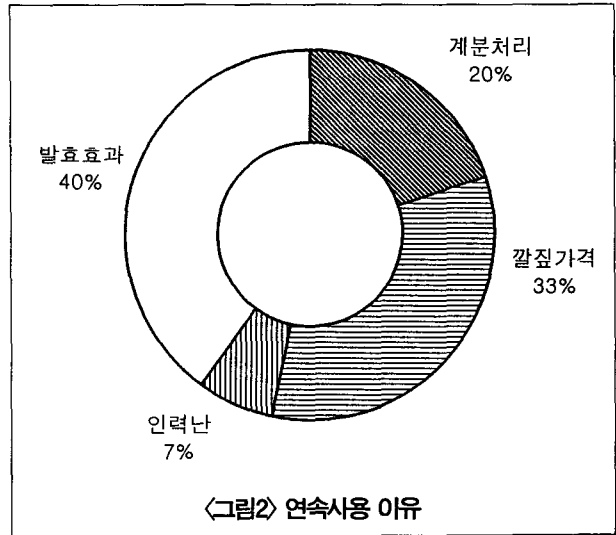
이곳은 계분을 모아두면 서울 인근의 농가(화훼·과수·비닐하우스 등)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간다.

#### ④ 가평

계분 업자들에게 언제 출하는 하는지 연락만 하면 출하 후 2~3일 후에 방문하여 바닥까지 청소를 해 주고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5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판매 대금을 주고 처리해 간다.

#### ⑤ 양평

양평도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상인에게 처리를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 ⑥ 천안

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일 인건비 포함 처리비로 30만원의 돈을 처리업자에게 지불하고 계분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 ⑦ 서산

서산은 인근의 농가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연계된 농가에서 4.5톤 트럭 한 차에 4만원을 농가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⑧ 홍성

홍성의 계분 중 1/3은 무상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 2/3은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량을 보면 상인에게 50%를 넘기고 나머지 50%는 인근의 농가로 넘기고 있다. 팔 때에는 5톤차

량 1대에 3~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논산

이곳도 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실정으로 계분을 팔지 못하고 인근의 농가나 계분 업자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있는 실정인데 계분 처리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⑩ 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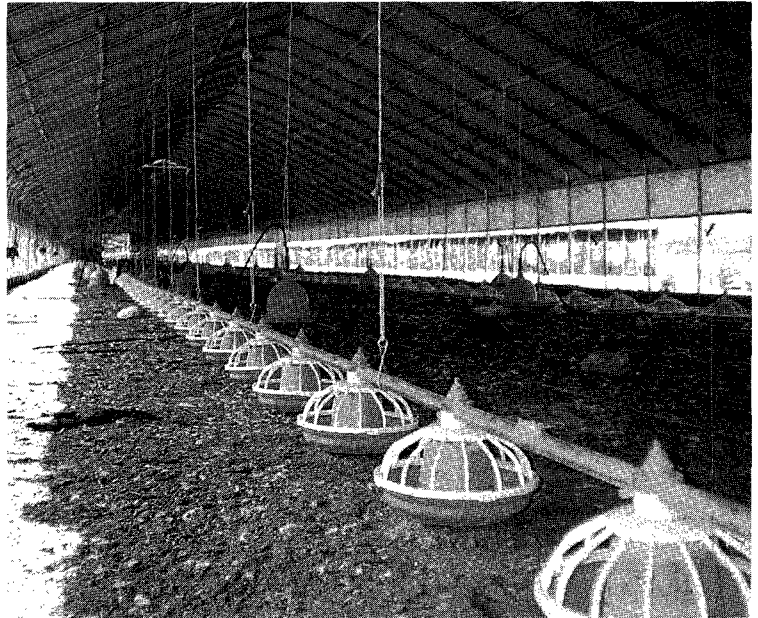
진천도 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현실이지만 계분 처리 업자와 계약을 해서 계분을 넘기는데 농장 청소까지 맡끔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처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⑪ 충주

15만수 이상 하는 곳에서는 자체 계분 처리장이 있어서 계분을 포대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이보다 작은 중소농장에서는 자체 처리 시설이 없는 판계로 상인에게 무상으로 주던가 아니면 돈을 주어가면서 계분을 처리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⑫ 청주

대부분 농장마다 계분 처리장을 만들어 1년동안 모아서 봄에 인근의 특수 작물(수박, 오이 등 기타 작물)을 하는 농가나 상인에게 톤당 8~9천원에 판매하는데 계사 청소를 할



때에 3만수를 기준으로 2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된다. 최근에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근 농가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⑬ 경북

육계농가에서 직접 계분을 팔려 인근의 과수나 원예 농가 그리고 중간 상인에게 타이탄(Titan) 1대당 20만원에 팔고 있고, 진계분은 무상으로 넘기는데 경북은 지역별·상인별로 그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다.

⑭ 경남

육계농가에서 고정된 과수나 원예 농가 또는 상인에게 타이탄(Titan) 1대에 8~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⑮ 전북

인근 농가나 상인들이 처리를 해 가는데 농가에서 가지고 갈 경우 하우스 200평을 기준으로 약 10만원에 팔고 있지만 농번기에는 계분을 가지고 갈 농가가 없어서 처리에 고충을 겪는 곳도 있다.

⑯ 전남

전남도 3개 지부와 비슷한 형편인데 2.5톤 트럭 1대에 5만원을 받고 있는데 계분을 모아 포대에 담아 두면 500~700원을 더 받고 있다.

⑰ 제주

전남과 비슷하게 농장 자체에서 계분을 처리 할 때에 20kg들이 정부미 포대당 4,000원을 받고 있는데 말려

표1. 지역별 계분 처리 실태

	용인	이천	포천	가평	양평	천안	서산	홍성	충주	논산	진천	청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판 매				○			○	○	○			○	○	○	○	○	○
무상처리	○	○	○	○	○	○		○	○	○	○				○		
차별지급						○			○								

주) 본회 지부·분회를 통하여 알아본 것임

포대에 담아 두면 300~5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처리 실태를 보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이 계분 처리업자나 상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반하여 경상남·북, 전라남·북, 그리고 제주도는 계분을 근처의 농가나 상인에게 대개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팔아 넘긴 계분의 가격은 깔짚비의 1/3도 나오지 않는 매우 싼 가격으로 농가에서 처리를 하지만 일부 발효가 잘된 계분은 깔짚비를 상회하는 가격으로까지 팔 수가 있어 지역별 또는 처리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부는 계분 처리 시설을 만들어 계분을 처리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양축가들은 계분을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극히 일부에서는 아직도 계분을 야적해 놓는 관계로 장마가 시작되거나 갑자기 소나기나 그 외 기상이 나쁠 때에 계분이

쏟아 내려 갈 경우 이것이 환경 오염원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민원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공동 계분 처리 시설을 갖추고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기는 하지만, 만약 어떤 지역에 계분 처리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민원이 야기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어 시행에는 다소 시일이 경과해야 할 것이다.

#### 4. 계열주체가 계분처리에 관심을

계약사육하는 농가의 계분 처리도 깔짚원료 공급과 마찬가지로 계열주체에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사육 농가와 같이 과수나 원예 농가 또는 상인에게 팔거나 무상으로 넘기고 있어

계열주체는 생산에만 신경을 쓰고 기타 농가의 부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계열주체 측에서 계분 처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 계분 처리에 드는 인건비와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 양축농가는 생산성 향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열주체 측에서 공동 건조장을 만들어 관리에 나서면 계약농가나 계열주체 측 모두가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간혹 육계농가에서 질병으로 조기 출하를 하는 경우 계분은 별로 없고 깔짚의 양만 많아서 계분의 품질이 좋지 못하여 상인들이 처리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앞으로 상인들도 계분을 무상으로 공급받겠다고 무작정 실어다 그대로 판매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가공을 한다면 부가가치도 높이고, 비싼 값으로 판매가 가능해지면 처리 업자도 수입이 발생하여 농가에게도 적은 양이지만 부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발생하는 육계분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연구·검토해 나아갈 시점으로 보인다. **양계**